



HIV/AIDS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해답의 열쇠 ver.2



HIV/AIDS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해답의 열쇠 ver.2

목차

<해답의 열쇠>를 발간하며 06

혈오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없어요!

이것만은 알아두자! 08

HIV는 무엇인가요?

AIDS(에이즈)는 어떤 질병인가요?

HIV와 AIDS의 차이, 조금 더 확인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U=U

해답의 열쇠 I 12

01 | HIV에 감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02 | HIV의 주된 감염 경로는 무엇인가요?

03 | HIV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04 | HIV는 치료제가 있다고 하던데, 완치되는 질병 아닌가요?

05 | HIV 감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해도 되나요?

06 | HIV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07 | HIV 검사를 받고 싶을 때 어디를 가야 하나요?

08 | HIV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09 | HIV 치료는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10 | 10대 청소년이 HIV에 감염 된다면 부모에게 알려지게 되나요?

쉬어가기

24

키스해링을 아시나요?

해답의 열쇠 II

26

- 11 | 청소년도 콘돔을 살 수 있나요?
- 12 | 우리 결혼 몇 명의 HIV 감염인이 살아가고 있나요?
- 13 |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해도 괜찮나요?
- 14 | HIV 감염인이라서 해서는 안 되는 일(직업)이 있나요?
- 15 | HIV를 전파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사실인가요?
- 16 |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늘어난다고? 이 말에 반박하고 싶어요!
- 17 | 에이즈 치료 때문에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18 | 친한 친구가 HIV 감염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9 | HIV 감염인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나요?
- 20 | 트위터에서 누군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핑퐁이 추천하는 유튜브 콘텐츠, 같이 봐요!

38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요!

43



<해답의 열쇠>를 발간하며 혐오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은 없어요!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이태원 게이 클럽 방문>,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13명 확진>과 같이 개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혐오가 거셀수록 성소수자들은 드러나길 주저했습니다. 당시 방역 당국은 특정 정체성을 비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과 함께 검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했고,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혐오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5월 한 달간 누적 확진자 수는 703명, 하루 평균 22.7명이었습니다. 지금(2021년 11월)과 비교해 현저히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은 확진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HIV/AIDS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해답의 열쇠>(이하 해답의 열쇠) 두 번째 버전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혐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혐오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있을까요? HIV/AIDS는 혐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혐오는 검사와 치료를 기피하게 만들고, 질병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혐오가 예방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답의 열쇠>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HIV/AIDS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담았습니다. 혐오와 공포에 기반한 자극적인 영상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을 배울 수 있는 유튜브 영상도 추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읽다 보면 HIV/AIDS에 대해 악의적이고 나쁘게만 말하는 혐오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고,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읽어보는 것을 가장 추천해드리지만, 궁금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읽어봐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겨있는 <이것만은 알아두자> 부분을 꼭 먼저 읽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해답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봤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평동에게 꼭 문의해주세요. 함께 '해답'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HIV/AIDS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을 대표해
민석, 상훈 씀

이것만은 알아두자!



HIV는 무엇인가요?

HIV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를 공격해 면역력을 서서히 떨어뜨리는 바이러스입니다.

혹시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감기도 면역력이 안 좋을 때 쉽게 걸리는 것처럼, 면역력이 좋아야 몸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IV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약해져 병원체를 방어하거나 몸을 보호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HIV 감염 사실을 빨리 확인하고 치료를 꾸준히 한다면,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AIDS(에이즈)는 어떤 질병인가요?

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입니다. HIV로 인해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면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전염성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각종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상태를 'AIDS(에이즈)'라고 말합니다.

면역력은 CD4림프구*라는 면역세포의 개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경우 CD4림프구가 1마이크로리터(소금 알갱이 크기 정도) 당 200개 이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각종 기회감염**을 겪기도 합니다.

*면역세포(CD4림프구)

인간의 면역체계에는 다양한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 CD4+T(헬퍼 T세포)세포는 우리 몸속에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면역반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HIV는 CD4+T를 파괴시켜 인체 면역시스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는 HIV 감염인이 CD4+T세포의 개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몸의 면역력을 보존하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회감염

면역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감염증을 말합니다. 그 중 HIV 감염인의 면역 기능 저하와 뚜렷한 연관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알려진 질병을 '에이즈 정의 질환'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HIV와 AIDS의 차이, 조금 더 확인해볼까요?

사람의 몸은 새로운 면역세포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HIV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면역결핍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져 에이즈 상태로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HIV 감염 상태를 빨리 알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HIV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IV에 감염된 사람을 ‘HIV 감염인’ 이라 부릅니다. ‘AIDS 환자’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HI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바로 몸이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HIV와 AIDS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에이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에이즈 환자의 아픈 몸을 드러내 HIV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이 아플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하고, 감염에 대한 공포심 또한 극대화시킵니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도식적인 분류가 자칫 에이즈 환자를 무조건 아픈 사람으로 묘사하게 하는 등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HIV와 AIDS 모두 치료 여부에 따라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할, U=U

U=U는 미검출(Undetectable)=감염불가(Untransmittable)의 약자입니다.

2017년 9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HIV 항바이러스 치료를 통해 체내 바이러스양이 미미한 상태가 되면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HIV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U=U는 감염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캠페인 구호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736쌍의 HIV감염인-비감염인 커플을 조사한 <HPTN 052> 연구와, 유럽에서 888쌍의 HIV감염인-비감염인 커플을 조사한 <PARTNER> 연구 결과 등이 U=U 캠페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연구 모두에서 HIV 감염인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혈중 바이러스가 잘 억제된 상황에서 비감염인 파트너와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HIV 감염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HIV/AIDS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해답의 열쇠 ver.2

해답의 열쇠 I



HIV에 감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코로나19가 다른 사람의 비말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것과 달리 HIV는 사람의 신체 밖에서는 쉽게 비활성화되거나 사멸하는 바이러스입니다.

HIV는 감염인의 혈액과 체액(쿠피액, 정액, 질분비액, 모유 등)에 주로 존재하고, 이를 통해 감염됩니다. 하지만 감염인의 체액에 노출되었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가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감염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야 하고, 둘째, HIV가 생존한 상태로 혈류로 들어 가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HIV에 감염될 확률은 없습니다.

HIV의 주된 감염 경로는 무엇인가요?

HIV는 감염 경로가 명확한 질환입니다. 주요 감염 경로는 치료받지 않은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 감염된 혈액의 수혈, HIV에 노출된 주사기의 공동사용, HIV에 감염된 여성의 임신과 출산(수직감염) 그리고 모유 수유 등입니다. 이마저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감염인이라면 전염 확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특히 어머니가 감염인이고 아무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약 23%이지만, 치료를 잘 받고 있다면 아기의 감염 가능성은 약 2~10% 이하로 낮아집니다.

감염 경로 중 감염 확률이 가장 낮은 것은 치료받고 있지 않은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입니다. 한 번의 성관계로 HIV에 감염될 확률은 0.04%~1.4%입니다.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HIV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된 사례가 있고, 국내 감염인 중 99% 이상이 성관계를 통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HIV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콘돔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IV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하는 것처럼 HIV 역시 감염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HIV가 감염 경로가 명확한 감염병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감염 경로에 노출되지 않으면 감염 가능성도 없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콘돔 사용이 HIV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알려진 만큼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콘돔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HIV 감염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아 체내 바이러스 수치를 미검출 상태로 유지한다면 HIV를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U 캠페인은 바이러스 미검출(Undetectable) 상태에서는 타인에게 HIV를 전염시킬 가능성도 없다는(Untransmittable)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HIV 감염 예방법도 있습니다.

PEP(펙) <노출 후 예방요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HIV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건(성관계나 주사기 찔림 등)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HIV치료제를 복용함으로써 체내로 유입된 HIV의 활동을 억제하여 HIV감염을 막는 방법

PrEP(프렙) <노출 전 예방요법>으로 불리고 있으며, PrEP 요법 목적으로 허가된 HIV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여 혈액 중 약물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HIV가 체내에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의 생존 및 증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감염 예방법

HIV는 치료제가 있다고 하던데, 완치되는 질병 아닌가요?

HIV는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아직 완치되는 질병은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식단에 신경 쓰거나 운동 또는 약물치료를 통해 혈당 수치나 혈압을 조절하는 것처럼 HIV감염인 역시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해 체내 HIV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 전문가들은 현재 HIV 치료 수준이 거의 완치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완치'라는 단어에 집착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하루 한 알 치료제를 복용하면 되고, 3~6개월 사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바이러스 수치 등을 검사받으면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감염인이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HIV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게 되어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HIV 활동을 억제하는 치료는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HIV 관련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 언젠가 HIV도 완치되는 날이 오겠지요?

HIV 감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해도 되나요?

HIV 감염인의 침, 땀, 대소변 등에는 아주 극소량의 HIV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함께 한다고 누군가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괜찮고, 화장실을 같이 써도 괜찮고, 신체적 접촉을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HIV는 인간의 체내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전파되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달리 HIV는 환경에 예민한 바이러스라서 혈액이나 체액이 아닌 환경에서는 생존력이 낮고, 인체를 벗어나면 바로 비활성화되거나 사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 직장, 공공장소 어디든 감염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HIV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염인과
식기나 컵을 함께 사용할 때



감염인과
화장실 변기 등을 함께 사용할 때



감염인과
침구류 등을 함께 사용할 때



감염인과
피부 접촉이나 포옹, 가벼운 키스를 할 때



감염인의
기침이나 재채기, 구토물로 인해



감염인과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을 함께 사용할 때



모기 등
벌레를 통해



감염인과
함께 운동할 때



감염인의
땀, 눈물, 침 등에 노출될 때

HIV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HIV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HIV에 감염된 사람 중 약 40% 정도가 감염이 된 후 2~6주 사이에 초기 감염 증상을 겪습니다. 주로 인후염, 부푼 림파선, 발열, 발진, 관절통 및 근육통, 설사, 피로감, 편도염 및 구강 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발열, 기침, 피로감, 미각 또는 후각 상실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이 확진되는 경우도 많듯이, 모든 HIV 감염인이 초기 감염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질병을 앓을 때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HIV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HIV 검사를 통해 정확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IV 검사를 받고 싶을 때 어디를 가야 하나요?

병원과 보건소, 그리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소수자 에이즈예방센터 iSHAP(아이샵)을 방문하면 HIV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와 아이샵에서 진행되는 HIV 검사는 무료이고,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거주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아이샵은 예약신청을 하고 약속한 날짜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HIV검사를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익명이 아닌 본명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때로 병원 정책에 따라 진료 시 부모의 진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 검사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평동이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검사 비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방법도 있어요!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오라퀵 자가검진 키트를 온라인이나 약국에서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라퀵은 혈액이 아닌 구강점막을 이용한 검사로 혼자서 쉽게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확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라퀵에서 양성 결과(검사 키트 상 두 줄, HIV에 감염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정식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중 일부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양성 결과가 나왔을 때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라퀵 검사를 받기 전 이후 진행될 일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 두고, 평동을 비롯해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라면 평동에 꼭 연락주세요!

기관명	상담 채널	운영시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카카오톡 : 평동119 전화 : 02-924-1227	화~토 오전 11시~오후 9시

HIV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혈액 검사는 기초 검사와 정밀 검사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정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는 위양성*여부를 확인하는 확진 검사입니다.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인 경우 이후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역학조사를 마치면 보건소를 통해 질병관리청에 HIV 감염인으로 등록이 되고, 병원 제출용 HIV확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HIV확진 진단서는 앞으로 다니게 될 병원에 제출하는 용도로 쓰이며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HIV 양성(HIV에 감염되었다는 결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많이 놀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밀려들고,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야기하기 어려워 혼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HIV/AIDS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두려움, 절망, 분노라는 감정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염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감정을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마음을 돌보기가 어렵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실명 등록이 된다고 해서 HIV 감염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 등록 후 번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의원 등을 방문할 때 본인의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 HIV는 코로나19 역학조사와 다릅니다. HIV 역학조사에서는 성별, 나이, 감염경로 정도를 파악하고 그 외에 다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이나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자신의 감염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양성 : 가짜 양성, 실제로는 음성인데 검사 결과는 양성이라고 나오는 것

HIV 치료는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HIV 치료를 받기 위해선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HIV를 다룰 수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보통은 대학병원에서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내과 전문의 진료가능 여부를 찾아볼 수 있고, 보건소에서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HIV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되면 경험 많은 감염내과 전문의들이 이후 치료 과정을 친절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또한 전국 26곳의 의료기관에는 HIV 전문 상담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는 물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수월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간호사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병원 목록

지역	의료기관명
서울	강동성심병원, 건국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13개 병원)
인천	인하대병원 (1개 병원)
경기	아주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3개 병원)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개 병원)
충청, 대전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2개 병원)
경상, 대구, 부산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4개 병원)
전라, 광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2개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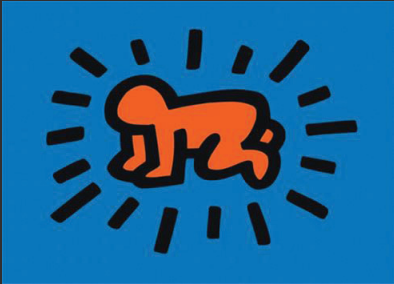
10대 청소년이 HIV에 감염된다면 부모에게 알려지게 되나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르면 HIV 감염 사실은 본인에게만 통보해야 하고,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정대리인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부모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HIV 감염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검진을 한 사람’이 법정대리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검사기관이나 감염내과 의사 선생님, 보건소 담당자 등 HIV 검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부모님에게 검사 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HIV 양성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HIV/AIDS에 대해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안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10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쉬어가기

키스해링을 아시나요?



(Radiant Baby from Icons series), 1990



Icons 2, 1990



Untitled, 1987

이와 같은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미술가 키스해링의 작품들입니다. 국내에서도 몇 번의 전시회가 개최될 만큼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티셔츠나 신발 브랜드에 그의 작품 이미지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일상의 친근한 소품이나 컬러링북을 통해서도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키스해링은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공공장소를 캔버스삼아 수백여 점의 그림을 그리는 거리의 예술가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예술로 표현하고자 한 사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Ignorance = Fear, 1989



Silence = Death, 1989

“갑자기 키스해링 이야기를 왜 하지?”하고 궁금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키스해링은 남성 동성애자이면서 1986년 HIV 확진을 받은 감염인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침묵은 죽음이다’라는 급진적 구호를 전면에 드러내는 작품을 그리기도 했고, 1990년 2월16일 에이즈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술을 통해 HIV/AIDS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당시에는 에이즈 치료제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31세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남아있는 그의 작품을 통해 HIV/AIDS 예방과 인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림 출처 : The Keith Haring Foundation〉

HIV/AIDS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해답의 열쇠 ver.2

해답의 열쇠 II



청소년도 콘돔을 살 수 있나요?

HIV 예방을 위해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콘돔을 구입하려고 하면 편지를 주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청소년도 편의점과 약국, 지하철역 자판기 등에서 콘돔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적인 장소에서 콘돔을 구입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면 명동과 같이 청소년에게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는 청소년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고, EVE 프렌치레터를 신청하여 콘돔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VE 콘돔 공식몰 : <https://evecondoms.com>)

때로 콘돔이 있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가 원하지 않아서, 타이밍을 놓쳐서 콘돔을 사용하지는 제안을 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콘돔을 사용하지는 제안에 나쁜 상황과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콘돔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망설여지는 그때가 어찌면 콘돔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콘돔을 사용하지는 제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콘돔 없는 성관계를 강제로 가지려 한다면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망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콘돔 사용이 상대와 나,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콘돔의 올바른 사용법

1. 콘돔을 지갑에 넣지 말고 전용 파우치나 케이스에 담아서 보관해야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콘돔을 착용할 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콘돔을 두 겹 이상 겹쳐서 사용하면 콘돔이 쉽게 손상됩니다.
4. 성관계 도중 콘돔이 빠졌다면 새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5. 콘돔 사용은 한 번만! 세척 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곁엔 몇 명의 HIV 감염인이 살아가고 있나요?

2020년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1,016명이 신규로 감염되었다고 보고되었고, 이 중 내국인은 818명, 전체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누적 감염인 수는 14,538명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대비 0.028%가 HIV 감염인으로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적은 편에 속합니다. OECD 국가별 HIV/AIDS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HIV 감염은 2.0명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7.0 명보다 적고 OECD 가입국 중에서는 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한국의 상황에서 유의 깊게 봐야 하는 특징은 20대의 젊은 연령층의 신규 감염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중 청소년 감염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2020년 기준 24세 이하 청소년 감염인은 473명(19세 이하 35명, 20~24세 438명), 전체 대비 3.3%입니다. HIV감염인 100명 중 3명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 감염인입니다.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해도 괜찮을까요?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때로 무섭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감염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 감염인과 친구 이상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방만 잘한다면 감염인과 성관계를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염인이 체내 바이러스 수치를 미검출 상태로 유지한다면 타인에게 HIV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없다는 U=U 캠페인에 대해 배웠습니다.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노출 전 예방요법인 PrEP(프렙)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HIV 감염 사실을 서로 알고 있다면 오히려 HIV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보세요.

HIV 감염인이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직업)이 있나요?

HIV 감염인은 요리사를 할 수 있을까요? 소방관이나 경찰, 군인은요? 간호사나 의사는 어떨까요?

세상은 아직 이런 직업들을 감염인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때로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감염인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고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감염인이 치료한 환자가 감염된 사례가 없는데도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장검진을 할 때마다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도 감염인의 몫입니다. 채용 후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HIV 감염 사실이 확인되어 채용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HIV 감염인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함께 근무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과 두려움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감염인의 일할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HIV를 전파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콘돔 없는 성관계를 전파매개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U=U 캠페인이나 <노출 전 예방요법> PrEP(프렙)과 같이 최근 에이즈 예방의 다양한 변화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고 있기도 하고,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감염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 감염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2020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규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기준)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감염인을 예비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입법 목적과 다르게 HIV 감염을 처벌 가능한 무서운 질병으로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기 검진을 꺼리게 만드는 등 오히려 감염병 예방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HIV 예방은 과연 이 법이 존재할 때만 가능할까요? 처벌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자발적 검진을 방해하고 감염인을 숨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전파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인 스스로 예방의 주체로 적극 나설 수 있을 때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늘어난다고? 이 말에 반박하고 싶어요!

개인의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과 상관없이 HIV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자 감염인이 있듯이 이성애자 감염인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특정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 HIV에 감염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다수의 사람들은 에이즈가 자신과 상관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면서 적절한 예방이나 검사를 소홀히 하게 될 겁니다.

질병 역학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각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적 조건과 유행률에 따라 HIV에 취약한 대상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남성 감염 비율이 높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여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한국은 치료받지 않은 감염인과의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주로 감염되지만, 다른 나라에선 HIV에 노출된 주사기를 공용으로 사용해 확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에이즈가 절대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HIV 예방을 위해서는 특정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에 취약한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이즈 확산의 책임이 동성애에 있다는 표현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영상만 검색해 봐도,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는 현장에 가봐도, HIV 감염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라고 말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HIV가 확산되는 이유는 에이즈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악용해 HIV 감염인을 음지로 내몰고,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바로 그 행동 때문 아닐까요?

에이즈 치료 때문에 세금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HIV 감염인을 ‘세금 도둑’ 또는 ‘귀족 환자’라고 부르며, 마치 국민 세금이 잘 못 쓰이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감염인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치료비를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치료비 부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HIV 감염인 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국제 사회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정책입니다. 비용부담이라는 장벽을 제거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되면 감염인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을 때 비로소 바이러스 전파력이 낮아지고 질병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곧 예방이란 사실을 상기해보는다면 치료비 지원은 세금 낭비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보건 정책입니다. 오히려 HIV 감염인이 ‘귀족 환자’로 불릴 만큼 좋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혜택을 없앨 것이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더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

친한 친구가 HIV 감염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IV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누군가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큰 결심 끝에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만큼 당신을 깊이 신뢰하고 당신과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뜻이겠죠.

가장 먼저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와 같이 쉽게 표현하지 못했을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염 직후인지, 아니면 감염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단계인지에 따라 우리가 보이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상태라면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의 감정 속도에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단계라면 감염 여부가 친구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언제나 네 편으로 남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감염인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지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당한 경험을 했다면 함께 화내고, 무슨 일을 겪든 곁에 있겠다고 한다면 든든한 마음과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HIV 감염인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말이 있나요?

누군가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오게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지요.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왜 감염되었는지’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 묻지 않아야 합니다. ‘문란한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야’, ‘동성애자라서 HIV에 걸렸을 거야’와 같은 선부른 단정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성적체성을 동의 없이 알리면 안 되듯, 다른 사람의 질병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태도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주의로 HIV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염 초기라면 자신을 감염시킨 사람에 대한 원망과 자신을 향한 자책이 매우 클 수 있고, 심지어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관계할 때 조심해야 한다거나, 콘돔을 꼭 써야 한다거나, 앞으로 애인을 만날 수 있겠냐와 같은 지나친 걱정은 서로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거부감이 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HIV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최선의 배려일 것입니다.

트위터에서 누군가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군가의 HIV 감염 사실을 원치 않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나서 듣게 되기도 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본인 동의 없이 HIV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아우팅)은 감염인 당사자가 차별과 혐오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한 불안, 대인기피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의 감염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당장 멈추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아우팅 상황을 조심스럽게 알리고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핑동이 추천하는 유튜브 콘텐츠, 같이 봐요!

유튜브에도 HIV/AIDS 관련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별다른 검증 없이 혐오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먼저 팩트체크를 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과 장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쾌감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급적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썸네일이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으로 제목을 짓는 경우도 많으니 이 같은 영상들도 유의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핑동이 엄선한 HIV/AIDS 관련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동아시아인스 | HIV 바이러스는 얼마나 강력할까?



HIV/AIDS에 대한 기초정보와 최근 의학 정보를 3분 이내로 짧게 소개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AMAZE | HIV는 무엇일까요?



(한글 더빙, 자막 지원)
HIV/AIDS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과 퀴즈 형식으로 표현한 영상입니다.



AMAZE | HIV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한글 더빙, 자막 지원)
학교에 HIV 감염인 학생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면 감염인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HIV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AMAZE | HIV 바로알기



(한글 더빙, 자막 지원)

HIV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HIV를 마주할 때의 감정이나 치료 방법 등 HIV 감염 이후 HIV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영상입니다.



AMAZE | HIV와 건강불평등



(한글 자막 지원)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이 영상에서는 HIV와 건강 불평등에 대해 다룹니다. 정체성을 질병 감염의 원인으로 볼 수 없지만, 성소수자가 왜 HIV 감염에 취약한지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딤페이스 | 나는 에이즈 감염인이다. 나는 여기 있다.



HIV감염인이자 아티스트인 이정식씨의 작품은 약 먹는 시간을 기록한 캔버스와 HIV 치료제를 녹여 바른 캔버스입니다. 약 먹는 시간을 기록하며 한 고민과 캔버스에 약을 녹여 바른 이유가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던져 줍니다.



답롱 | 에이즈가 천의 형벌? HIV 확산은 사람들의 편견이 만드는 겁니다



[순천향대 감염내과 의료진] HIV 감염인을 돕는 의료진이 이야기하는 HIV/AIDS에 대한 이야기, HIV 감염인을 직접 만나는 의료진들은 HIV/AIDS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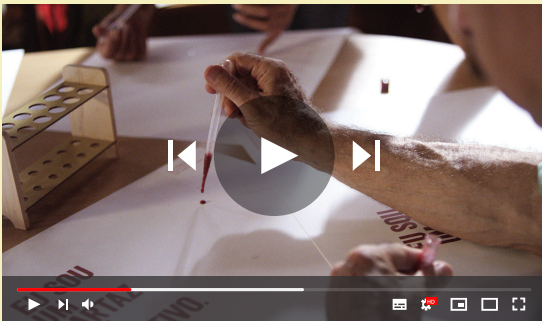
닷페이스 | 에이즈 문제는 인권 문제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단체 행사장에서 발언권을 얻어낸 윤가브리엘, HIV 감염인 인권활동가 윤가브리엘은 1분 발언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Ogilvy Brazil | THE HIV POSITIVE POSTER / O CARTAZ HIV POSITIVO



(한글 번역 미지원)
HIV감염인의 혈액 한 방울을 담은 포스터가 도시 곳곳에 게시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포스터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HUFFPOST

뉴스&이슈 글도법 보이스 라이프 엔터테인먼트 코로나19

뉴스 2015년 05월 29일 10시 24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29일 10시 52분 KST

사람들은 이 포스터를 본 후 HIV 보균자의 피를 만졌다(동영상)

강병진
허핑턴포스트코리아

THE HIV POSITIVE POSTER / O CARTAZ HIV P...

다음에서 보기: YouTube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까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HIV 보균자와 에이즈(AIDS) 환자는 약 350만 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의학의 진보는 그들이 바이러스와 함께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HIV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고 있다.

- 량동 | 1. 에이즈(HIV 양성)라는 걸 숨기고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PART 1
 2.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에이즈(HIV 양성)라고 고백했었습니다 PART 2
 3. 에이즈 환자(HIV 양성)와 만난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PART 3

RED TALK 01

CATCH ME IF YOU CAN!

나를 맞춰보세요!

HIV 감염인 유투버 량동이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만난 사람들에게 정체를 맞춰보게끔 힌트를 던집니다. 사람들은 과연 량동의 HIV 감염 사실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HIV 감염인을 만난 사람들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핑동은 HIV 감염인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HIV감염인 청소년 상담 및 지원

HIV 확진 이후 삶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고민이 된다면, 가족과의 갈등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병원 진료 및 투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핑동으로 연락주세요.



콘돔과 젤 무료 배포

아이샵 등을 통해 지원받은 콘돔과 젤을 핑동에 오시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HIV/AIDS 예방/인권교육

핑동에 방문하면 <도전! 힙스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쉽게 HIV/AIDS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맞춤형 HIV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지적 감염인 시점

연 1회 개최되는 <전지적 감염인 시점> 프로그램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배우고, 20대 청년 감염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HIV/AIDS 감염인 커뮤니티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http://www.knpplus.org>

전화 070-7567-1595 (월요일-토요일, 11:00-19:00)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http://communityr.org>

전화 010-2164-1201 (화요일-토요일, 11:00-21:00)

러브포원

<http://love4one.com>

그 외

에이즈 상담센터

<http://aids114.or.kr>

상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카카오톡 에이즈상담센터, 전화 : 1599-8105

※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운영하는 상담지원 사업으로 심리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iSHAP(아이샵, Ivan Stop HIV/AIDS Project)

<http://ishap.org>

서울센터 02-792-0083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14:00-21:00

부산센터 051-646-8088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14:00-21:00

이태원센터 02-749-1107 운영시간 수, 금, 토요일 14:00-21:00

※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동성애자 에이즈예방센터로서 콘돔과 젤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에이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검진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HIV/AIDS

궁금증을 해결해 줄 해답의 열쇠 ver.2

발행일 2021년 12월 1일
펴낸곳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디자인 흑석동작업장
홈페이지 <http://ddingdong.kr>
이메일 lgbtq@ddingdong.kr
전화 대표 02-924-1224 후원문의 : 070-4493-1640
팩스 02-6969-5024
트위터 @DDingDong119
페이스북 [facebook.com/DDingDong119](https://www.facebook.com/DDingDong119)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0-529880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동

함께 만든 이들

집필 정민석, 박상훈
감수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위기를 자긍심으로!

핑동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라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TEL 02-924-1227

카카오톡 핑동119

카카오톡에서 핑동과 친구하세요!

친구찾기 > ID검색 > **핑동119**검색 > 친구추가

문 여는 시간 매주 화요일~토요일 11:00~21:00